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2일 (음력 12월 6일) 월요일

## 출마 러시 광주시의회 '미니 의회' 전략 우려

‘풀뿌리 자치의 주역’을 뽑는 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이나 공천을 준비중인 출마예정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중앙 정치권의 지형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지방의회는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설 연휴 전인 다음달 5~13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일반안건 처리도 이뤄진다.

올 한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당 분당 초읽기...교섭단체 대표연설 불투명  
예비후보 등록 맞물려 3~4월 임시회 무더기 공석  
상임위 재적의원 5~6명→2~3명 반토막 날 수도

시장과 교육감의 총괄보고에 이어 3일 6국 3본부 12관 4담당관실의 상임위원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임시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일 국

민의당 통합과 주도로 정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통합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본회의 참석은 물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

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민중 원내대표는 “본당이 초읽기에 들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며 “정당대회 전에 집단 탈당 등이 이뤄질 경우 교섭단체를 다시 짜야 해, 현재로서는 대표연설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9명으로 대다수는 통합 반대파여서 집단 탈당이나 개혁신당 또는 무소속행이 우려되고 있다.

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따른 의사일정 파행도 예상된다. 22명의 시의원 중 구정장 출마예정자는 적게는 10명, 많게는 12명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시의원이 같은 지역 구 시의원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 사퇴없이 5월24일부터 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구정장에 도전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일인 3월2일, 늦어도 선출직 사퇴 시한인 3월15일 안에는 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출마후보군 모두가 당내 경선에 나서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현직 시의원의 절반 가량이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회(3월5~12일), 4월 임시회(4월9~16일)는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1(8명 이상)도 가까스로 채우고, 현재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으로 구성된 5개 상임위는 2~3명의 비내 상임위로 짜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의원은 “3월2일에 사퇴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각종 행사에 참석한 뒤 사퇴 시한에 맞춰 ‘방’을 뺏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양당 또는 다당제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경선도 뜨겁고,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의회 빈자리가 많이될 것 같다”며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수산물 살펴보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여수시 여수수산물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여수수산물시장은 지난해 1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재개장했다.



결론은?

여야는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감람을 조여가고 있는 검찰의 디스 비자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보수정권 전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날선 신 경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일단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전 대통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이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범법에 꼭 세워야겠다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숙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 = 뉴시스



사필귀정이다

추미애



정치보복이다

김상태



동고동락합니다

박근혜

##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지역경제 안정 위해 노사 힘 모아야”

금호타이어는 21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의 차입금 1년 연장 합의와 관련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먼저 고통분담에 나선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사의 생존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오는 22일 노

동조합에 집중 교섭을 요청하고 노사간 진중한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겠다. 기간 내에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노사가 남은 1개월 동안 진정

성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채권단과 시장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합당한 수준의 자구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채권단의 양보로 어렵게 주어진 1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허비한다면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24일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집중교섭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충분담 수준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앞선 19일 45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오는 24일 전면 파업과 상경 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8일 차입금 만기 1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거래 종결시까지의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